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4월 15일
(월요일)

강북신문 7면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 모습.

강북구의회 9일 국외여행심사위 개최

미국동부 뉴욕,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등 방문 추진

강북구의회가 미국동부의 뉴욕,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등을 방문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한다.

강북구의회는 4월 9일 제1위원회실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미국동부의 주요도시의 의회 및 복지, 도시시설과 CCTV 통합관제센터, 노점상 등의 관리 실태를 시찰하는 내용이 계획되어 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박문수 의원과 최선 의원 외에도 최충민 남서울대학교 교수, 강민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북학원폭력예방대책 위원, 김준경 서울희망교육네트워크 회원 등 총 3명

의 외부인사가 참여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2항에 의거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공무국외여행 후 통상적이지 않고 알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보가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시사프리신문 7면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뉴욕,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등 방문 계획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지난 9일 제1위원회실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미국동부의 주요도시의 의회 및 복지, 도시시설과 CCTV 통합관제센터, 노점상 등의 관리 실태를 시찰해 강북구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뉴욕,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박문수 의원, 최선 의원 외에도 최충민 남서울대학교 교수, 강민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북학원폭력예방대책 위원, 김준경 서울희망교육네트워크 회원 등 총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



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박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서

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2항에 의거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공무국외여행 후 통상적이지 않고 알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가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박문수 위원장은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주민참여의회 정신에 의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공무국외여행심사의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개최

박문수 위원장, “알찬 내용 담긴 보고서 제출” 주문

강북구의회는 지난 9일 제1위원회실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무국외여행은 미국동부의 주요도시의 의회 및 복지, 도시 시설과 CCTV 통합관제센터, 노점상 등의 관리 실태를 시찰해 강북구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뉴욕,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박문수 의원, 최선 의원 외에도 최충민 남서울대학교 교수, 강민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북학원폭력예방대책 위원, 김준경 서울희망교육네트워크

회원 등 총 3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박문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4조2항에 의거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공무국외여행 후 통상적이지 않고 알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세부적

인 정보가 구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공무국외여행 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박문수 위원장은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 주민참여의회 정신에 의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이번 공무국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공무국외여행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등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